

# 소화전도 없는 문화재... 불나면 어떡하나

## 나주 다중이용시설·문화재 소방 대책 현장점검해 보니

전남도 지정문화재인 나주 미천서원에 는 소화전 하나 없고, 나주배원예농협과 목사고을시장 소화전 앞에는 집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고...

나주시 일대 공공장소와 서원 등 문화재 의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.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는 등 '안전불감증'이 여전했다.

◇가려진 나주배 원예농협 소화전=11 일 광주일보의 확인 결과 다중이용시설인 나주배 원예농협의 소방시설 관리가 엉망 이었다. 나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배 원예 농협은 옛 본관건물과 신관건물, 공판동 2 개동, 식당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.

구 본관건물 1층은 농약판매 사무실 및 약품, 배 박스, 스티로폼 등 각종 농자재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있고, 2층은 조합원 들의 교육 및 입찰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250평 규모의 강당이 있다.

이 건물에는 소화전 3개와 송수구 및 분 말소화기 등이 설치돼 있다.

하지만 설치된 소화전 3개 중 2개가 포 장박스 등에 가려져 있어 제대로 찾을 수 도 없었다. 소화전 앞을 가린 집 때문에 불 이 났을 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 였다.

또 일부 송수구는 건물을 증축하면서 벽 을 막아버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, 곳 곳에 비치돼 있어야 할 소형 소화기는 창 고 바닥 한 곳에만 보관하고 있었다.

이 창고에는 종이 박스와 스티로폼 등 불이 잘 붙는 물품이 많고, 각종 맹독성 농 약이 가득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 명피해가 우려된다.



태평사 입구 소각장은 소나무숲에 설치된 채 사용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.

## 미천·월정·경현서원 등 문화재 관리 너무 허술

### 배원예농협 소화전은 산더미 짐으로 가로막혀

## 향토문화유산 있는 태평사 숲속 소각장 대형산불 우려

◇문화재도 위험에 노출=문화재 관리 가 허술했다. 나주시에는 현재 국보와 보 물을 포함해 ▲국가 지정 문화재 29종 ▲남도 지정문화재 37종 ▲나주시 향토문화유 산 38종 등 총 126종류의 지정 문화재가

있다. 지난 2008년 승례문(국보 1호) 화재로 목조 문화재의 소방시설 구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나주시 목조문화재의 소방 장비 및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 타났다.

전남도 지정 문화재인 미천서원과 설재 서원 및 향토문화 유산인 월정서원과 경현 서원의 경우 소화전 하나 없이 소형소화기 몇 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미천서원, 월정서원, 경현서원은 임금이 현판을 내린 사액(賜額)서원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. 경현서원은 영남의 유학자인 김광필, 정여창, 이언적, 김성일 등이 포함된 7인의 위패가 배향된 곳이다.

◇사찰도 화재에 취약=노안면 영평리 에 태평사의 소각시설도 미흡했다. 향토문 화유산인 '마애보살좌상'이 있는 본당 뒤 편에는 휘발성 물질이 가득 담긴 기름통이

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.

또 사찰입구에 소각장은 소나무 숲에 설 치돼 있어 자칫 산불로 이어질 우려도 컸다.

이곳 소방시설은 소형소화기 몇 개가 전 부여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절실 함을 보여주고 있다.

나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나주 목사 고 을시장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.

이곳에도 상인들의 각종 물품이 소화전 을 가로막고 있고 계단에는 포대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등 화재시 대피로도 부족했다.

나주시와 소방서 관계자는 "서원과 사 찰의 관리는 해당 문중이나 관리자가 해 야 하지만 관리자들이 영세한 경우 경제적 문제 등으로 관리 자체가 힘들다"며 "목 조문화재는 자칫 화재로 한 순간에 잃을 수가 있어 관련 대책을 세우고 화재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"고 말했다.

/글·사진 나주=손영철기자 ykson@



## 올 두번째 '들썩들썩' 토요일문화장터 열려요

### 목사고을시장 14일 개최

나주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업단(단장 조진상)은 14일 오후 2시부터 두번째 '들썩들썩' 토요일 문화장터(사진)를 개최한다.

이날 행사는 나주 청소년수련관의 청 소년 어울림마당 '확자지갈'과 함께 가족 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. 나주 청 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문화공연을 시작으 로 빅보이의 비보이, 요술당나귀의 인디 밴드, 극단 토박이의 '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찢짜버거' 연극이 무대에 올려진다.

한 체험마당에는 전통놀이와 보드게 임, 발찌·팔찌 만들기, 천연비누만들기, 조리만들기, 부채만들기 등과 인간 샌드 백, 프리허그, 식물키우기, 데시벨 측정

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.

특히 왕따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극 단 토박이의 '글러브와 스틱 그리고 찢 짜버거' 공연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 된다. 연극을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자, 가해자, 방관자의 상처와 죄책감에 극단 적인 선택하는 모습을 80년 오월의 상처 를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,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오월 피해자들의 모습을 투영한 작품이다.

인디밴드 '요술 당나귀'는 음악을 통 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빛을 밝히고 싶다는 뜻을 표고 있다.

안국현 상인회장은 "오랜만에 가족들 과 함께 토요일 문화장터를 찾아 나주 청 소년의 문화공연과 체험거리를 즐길 것"을 당부했다.

/나주=정철현기자 chung@



## 귀농·귀촌 예정 42명 영농 기초교육 수료식

### 나주시 농업기술센터

나주시 농업기술센터(소장 이민관)는 최근 귀농·귀촌인 및 귀농예정자를 대 상으로 실시한 영농 기초교육 수료식

(사진)을 가졌다. 이번 교육은 귀농·귀 촌인 및 귀농예정자 42명을 대상으로 지 난 4월 24일 개강해 5월 29일까지 총 6일 간(39시간)에 걸쳐 실시됐다.

이번 영농기초교육은 일회성 단순교 육을 넘어 영농설계 및 경영일지 작성, 나주 농업기상정보, 농산물 마케팅 ▲농 촌에서의 건강관리, 농업법률, 귀농사 례, 특작작물 재배기술, 좋은 토양만들

기, 현장견학(6차산업) 등 귀농 생활에 필요한 농업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겸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.

특히 6회차(5월 29일) 교육은 '귀농인 들을 위한 흙의 이해와 좋은 토양만들 기'를 주제로 "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 것 은 어떠한 기술보다 땅심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"는 내용으로 실시됐다.

이민관 소장은 "후속교육은 하반기 품목별로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 역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다루는 등 앞으로 다양한 귀농·귀촌 정책을 펼쳐나갈 것"고 말 했다. /나주=정철현기자 chung@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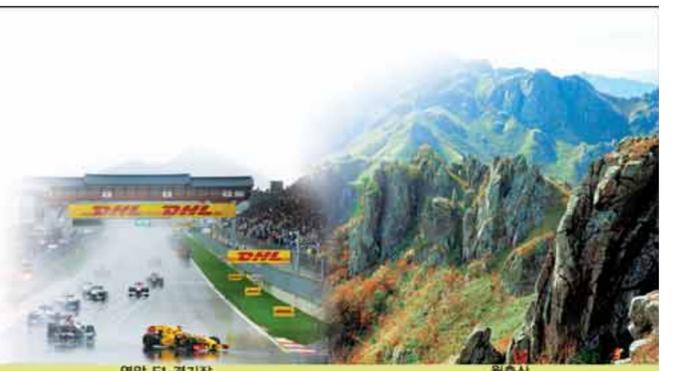
목사골 시장에 있는 소화전이 맥주박스 등으로 가려져 있다.



원예농협건물 1층 창고의 배포장 박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자 구석에서 겨우 소화전을 찾을 수 있었다. 소화전 옆 송수구는 벽을 뚫으면서 막아져 무용지물인 상태다.

변화와 혁신으로 영암의 밝은 미래!!

# 통합과 화합으로 하나된 새영암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



<b>영암교육지원청</b> 교육장 나 대 수	<b>영암 경찰서</b> 서장 김 영 달	<b>영암 소방서</b> 서장 박 용 기	<b>영암우체국</b> 국장 윤 치 성	<b>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</b> 지사장 김 근 환
<b>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</b> 지사장 오 병 희	<b>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</b> 지사장 안 영 근	<b>월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</b> 소장 김 승 희	<b>농협 영암군지부</b> 지부장 김 양 권	<b>영암문화원</b> 원장 김 한 남